

직물용어 해설-09

* 오트밀(Oat meal)

① 크레이프 또는 화강직이라고 불리는 직물이며 표면에 거친 점점이 있는 조직을 말한다. ② 경사는 가늘고 위사는 굵으며 5매 종광의 불규칙한 크레이프 조직으로 제작한 직물을 말한다. 이 오트밀 조직은 도비라던가 자카드의 지조직에 많이 쓰인다. 또 이 조직의 완전 조직은 경위사 8×8을, 5매 종광으로 제작한다. 규격은 경위사 76×76을/2.54cm, 경사 Ne 30's, 위사 Ne 30's 순면사이며, 거친 것은 경위사 50×40을/2.54cm, Ne 30's×10's를 사용한다. 모직물에서는 잡종사를 쓰고 밀도는 매우 작다.

* 옥스퍼드(Oxford)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사용하는 실은 굵은 실이나 가는 실 여러가지로써 얇은 것이나 두꺼운 것이 있다. 경위사 모두 2올씩 나란히 배열하여 제작하는 것이 표준이지만 경사는 2올 배열하고 위사는 경사 2올과 같은 정도의 굵기의 것을 한 올 타입 하는 것도 많다. 경사 3올, 위사 3올을 조합한 것도 있다. 조직의 관계로써 원단에 기공이 많아서 여름용이다. 슬리브, 내의, 드레스, 와이셔츠, 사무복, 작업복, 파자마, 운동복(모두 여름용), 베드 스프레드 등에 사용한다.

* 옥양목(Bleached cotton shirting)

경사, 위사 30's 정도의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표백 면직물

* 융단(Carpet)

파일직물로서 마루에 까는데 사용한다.

* 이지직(梨地織, Nashiji)

레이온, 견,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는데 경위에 무연의 생사, 인견사 또는 합섬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이지직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러한 이름과 같이 배 겹질이 덜인 듯이 보인다. 보통 도비로 제작한다. 무지염이라던가 날염한다. 여성복, 아동복, 안감, 커튼, 의자, 소파의 커버 등으로 사용한다. 위사에 강연

사를 사용하여 이지로 제작한 것을 마미크레이프(mummy crepe)라고 한다. 흑색, 농감색, 연지색 등으로 염색한 것이 많다. 디너 드레스 등의 정형적인 복지에 사용한다.

* 이탈리아 클로스(Italian Cloth)

면,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비닐론을 사용하여 주자적으로 제작하는데 모이탈리안 클로스는 모주자라고도 한다. 경사에 면사, 위사에 이탈리아 클로스 양이라고 하는 강연의 소모 단사를 사용하고 5매 위주자로 제작한다. 위주자이기 때문에 위사에 소모사가 많이 표면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으나 더욱이 제작후 경사 방향으로 인장 되어 면사의 경사가 표면으로 노출되어 보이지 않도록 직문 면이 한결같이 소모사로 덮여지도록 마무리를 한다. 역시 압용을 시행하고 직물면에 깊은 맛이 있는 광택을 부여한다.

면 이탈리아 클로스는 5매 위주자로 제작한다. 보통 검정색으로 필염하고 슈라이너를 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복지 안감, 소매 부리, 양산지 등으로 사용한다.

* 인디언 헤드(Indian Head)

레이온, 폴리에스터, 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경위사에 양질의 태번수 단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한다. 바닥은 두껍고 성긴 밀도로써 제작사의 섬도반이 나타나 보이고 일종의 독특한 풍격을 구비하고 있다. 표백하기도 하고 무지염 또는 날염하기도 한다. 통상 실켓가공을 시행한다. 약간 두터움이 피부에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한 감촉의 것으로써 초여름으로부터 여름에 걸친 의류에 좋다. 스커트, 원피스, 투피스, 아동복, 스포츠웨어, 커튼 등으로 사용한다.

* 인트와이닝 능직(Entwinning twill)

방향이 반대되는 두 개의 같은 능직을 배합하여 망 모양으로 한 직물

* 자루직(Circular weave, Tublar weave)

경위 이중직을 사영하여 자루 모양으로 짠 직물

* 저지(jersey)

연사 방향이 다른 방모 단사 등을 1올씩 사용해서 축융하여 편성물과 같은 느

낌이 나는 직물 또는 이와 비슷한 직물

* 절직(Flake Cloth)

레이온, 폴리에스터, 면 등의 섬유를 사용한다. 늘어져 쳐진 매듭이 있는 실을 통상 경위사로 사용하여 평직으로 한 것이다. 직물면에는 불규칙하게 늘어져 쳐진 매듭이 나타나고 독특한 맛을 나타낸다. 경위사에 16's 또는 14's 단사의 매듭사를 사용하고 바닥은 성기고 유연한 풍미의 것과 경사에 30's 단사의 매듭사, 위사에는 경사보다 굵은 20's, 18's 단사 등의 매듭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약간 바닥이 치밀한 것이 있다. 모두 비스코스·리넨 풍의 풍미를 갖는 듯한 제직과 마무리되고 되어 있다. 여성용, 아동복지 등으로 사용한다.

* 제코니(Zeconic)

경사에 강연사를 사용하고 경사의 프로팅을 많게 한 주자 조직으로 광택이 있는 소모직물

* 조오젯(Georgette)

견, 레이온, 면, 모,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한 경위 측면이다. 경위 모두 좌연의 강연사와 우연의 강연사를 2을씩 번갈아 가며 제작한 것이다. 경사와 위사의 섬도와 꼬임 수를 거의 같게 한다. 밀도는 비교적 성글고 얇은 것으로 제작한다. 견 조오젯은 15~45g 정도의 것이 많고 꼬임 수는 3,000~3,500T/M 정도이다. 인견 조오젯으로는 120d 사용한 것과 75d 사용한 것이 있다. 큐프라를 사용한 것은 보통 75d이다. 60d 사용한 것도 있다. 꼬임 수는 2,500~2,800T/M 정도이다. 직상 폭은 과거에는 36inch가 많았으나 요즘은 44~46inch 또는 58~60inch의 광폭 제품이 보편화되어 있다. 박지이지만 촉감은 딱딱하다. 광택은 없다. 표백하기도 하고 필염하기도 하고 날염하여 사용한다.

조오젯에는 강연사 외에 섬도라든가 색이 다른 무연사를 제작하여 경사 줄무늬라든가 격자모양을 나타낸 줄무늬라든가 격자상의 조오젯이다. 요즘은 면, 폴리에스터/면 혼방, 양모 조오젯도 만들어지고 있다.

오팔 조오젯(rayon satin opal georgette Crepe)은 서로 다른 섬유의 실을 조합시켜 특수한 가공법에 의하여 문직과 같은 뛰어난 맛의 모양을 천 위에 나타낸 직물이

다. 우선 경이중직으로 제작한다. 위사에 좌우 강연의 생사를 2올씩 교호로 타입 점은 보통의 조오젯과 다르지 않으나 경사에는 좌우 강연의 생사를 2올씩 교호로 사용하는 외에 무연의 인견사인 경사를 한조 더 사용한다. 이러한 여분의 경사를 통상, 주자조직으로써 지조직의 편면이 지조직으로 덮이도록 제작한다. 제작 후 인견사는 산에 녹으나 생사는 녹지 않는 성질을 응용하여 무늬의 형태로 방산제를 칠한 후에 황산욕이라던가 염산욕에 침지하여 모양 이외의 부분의 인견사를 녹여 빼낸다. 인견사가 녹여 빼낸 곳과 방염되어 빠지지 않은 곳의 대조에 의하여 비취보이는 조오젯 바닥에 인견사로 만든 불투명한 백색 또는 바닥 색과 다른 담색의 모양이 부출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가공법을 다마스크 날염 또는 오팔 날염이라고 한다. 합섬사와 인견사의 교직도 있다. 인견사 대신에 면사라던가 스프사를 사용하여 폴리에스터사라던가 아크릴사의 교직물에 오팔 날염을 시행한 것도 있다.

이절문 조오젯(uragiri georgette Crepe)은 경위사에 좌우 강연사의 생사를 2올 교호로 사용하여 조오젯지를 제작하고 동시에 별도로 무연 인견사를 한가지 색 또는 여러 색의 다른 경사(모양사)로써 사용하여 이것을 직물의 표면에 무늬를 나타내도록 제작한다. 다른 경사의 모양사는 표면으로써 무늬를 제작하고 있는 부분 이외는 천의 이면에 길게 부출되어 있다. 이것을 이취(裏吹, 우라후끼)이라고 한다. 이취한 여분의 인견 경사는 제작후 손으로 가위를 사용하여 끊어낸다. 전무기를 병용하는 것도 많다. 이것을 이절(裏切, 우라기리)라고 한다. 요즘은 합섬사를 사용하는 것도 많다. 이절문의 수법은 조오젯 외에 보일 등의 박지 직물에도 응용된다. 박지만으로 모양사를 이면에 부출 시켜 제작한 채로 남겨 놓으면 표면으로부터 투과하여 보이고 외관을 손상한다. 따라서 무늬 이외의 불필요한 부분의 부출사를 끊어내는 것이다. Georgette라는 명칭은 프랑스의 여성복 상인 조오젯(Georgette de La Plante)부인의 이름을 붙인 등록 상표였다.

용도는 이브닝 드레스, 전기 스탠드의 갓, 커튼, 베드 스프레드, 여성 모자, 기타 장식용 등이다.

조오젯(Georgette)은 강연 직물의 가장 대표적인 직물으로써 경위사 모두 2,800 ~

3,800T/M의 강연사를 S, Z꼬임 방향을 교호로 배열하여 제작한 것으로 얇고 투명한 것이 특징이고 견직물인 경우 경위사 모두 120d 2가닥을 합하여 강연을 주어 경사에는 가호를 하여 S, Z 각각 2을씩 교호로 배열한다. 밀도는 특히 적으며 경위사 모두 같은 정도의 올 수로써 제작하여 감량가공을 실시한다. 감량은 가성소다 등의 알칼리로써 보통 15~30% 정도 실시한다. 최근에는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등의 원사를 사용하고 합성사인 경우에는 50d, 75d 등의 세사를 사용한다. Georgette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Single Georgette : S, Z 중 한쪽 방향의 :꼬임만으로 제작한 Georgette 직물
- ② Matt Georgette : 조직의 표면 위에 작은 사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 직물을 통틀어 “Matt”조직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직을 갖는 Georgette를 말한다.
- ③ Amunzen Georgette : 조직의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원사의 꼬임 및 조직에 의하여 배꼽질 모양의 오돌토돌한 효과 즉 크레이프 효과가 있는 조직을 총칭하여 “Amunzen”조직 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직의 Georgette를 말한다.
- ④ Satin Georgette : 경사가 여러 번 부출할 때마다 위사는 한번씩 부출 하게 만든 조직으로 직물의 표면이 매끄럽고 이면은 그렇지 않은 조직을 총칭하여 satin Georgette라고 한다.

* 조오젯톤(Georgetton)

면의 조오젯 크레이프에 붙인 명칭

* 조포(Sheeting)

경사, 위사에 24's 이하의 단사를 사용한 평직물

* 주야 능직(Twillcheck, checker board twill)

변화 능직의 일종으로 능 방향이 서로 다른 경능지와 위능직을 배합한 직물

* 주자(Satin)

견, 면,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세테이트, 비닐론 등의 섬유를 사용한 조직명임과 더불어 직물명도 있다. 일본어의 주자는 면, 스프의 주자도 포함하고 있으나 영어의 Satin은 견, 화합섬 장섬유의 주자와 그의 교직인 주자만을 가리킨다. 요즘은 새틴이라고 부르는 것이 많다. 여기서의 견, 화합섬 장섬유의 주자와 그의

교직물에 대하여 논술한다. 주자에는 경주자와 위주자가 있는데 견과 장섬유인 화합섬의 주자는 모두 경주자이다. 교직물에서도 경사에는 광택이 풍부한 견, 화합섬을 사용하여 이것을 표면으로 부출 시켜 직물 면에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10매, 12매 주자도 있으나 5매 주자와 8매주자가 보통이다. 본견 주자로는 생견 주자와 련견 주자는 경사에 제연본련 견사를 사용한 고급품이다. 백색 외에는 모두 사염이다. 사염 주자에는 무지물도 있으나 가로 줄무늬, 격자도 많다. 무지물에는 경위사를 같은 색으로 한 것과 경위사에 이색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경주자의 조직상 표면에는 경사의 색만이 나타나고 무지로 보이는 것이 있다. 후자는 이면에는 위사의 색이 나타나 보인다. 2조의 경사를 사용하여 경이중직으로 하고 표리 모두 아름다운 주자면을 제작한 양면 주자(satin double faced)도 있다. 화합섬의 주자는 경위사에 무연의 장섬유사를 사용하여 주자직으로 한 것으로써 통상 광택이 있는 실을 사용한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 사염의 가로 줄무늬로 제작한 것도 있다. 11,000올이라던가, 13,000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경사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직상 폭 45inch 사이의 경사의 올 수를 나타낸다. 올 수에 급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11,000올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규격에 미달되는 것으로써 45인치 사이의 경사 올 수가 11,000올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럭저럭 11,000올으로써 취급한다고 하는 정도의 것을 가리킨다. 문주자는 자카드로 제작하여 경주자의 바닥에 위주자로서 모양을 나타낸다. 레이온 문주자는 후염이 많다. 본견 문주자로는 생직물과 련직물이 있다. 생직물의 본견 문주자를 윤자(綸子)라고 한다. 윤자는 경위사에 무연의 생사를 사용하여 주야 조직의 수법으로써 마의 엽봉(葉崩),원록(元祿), 사능형(紗綾形), 당초(唐草) 등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게는 60~75g 정도의 것이 많다. 바닥과 무늬 모양은 표리 모두 같게 보인다. 경주자의 바닥과 위주자의 무늬는 광선의 반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늬 모양이 나타나 보인다. 백색 또는 무지염, 날염하여 사용한다. 위사에 강연사를 넣으면 윤자축면으로 된다. 련견 문주자로는 단자(緞子), 수진(繡珍) 등이 있다. 교직주자 주자 조직에서는 직물의 표면은 경사만이 한 면을 덮고 위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직물 면에 주자 특유한 광택을 얻기 위해서는 경

사에만 광택이 있는 원사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한다. 따라서 경사에만, 견사, 인견사 또는 나일론사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면사, 스프사 등의 값이 싸고 더욱이 강한 원사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주자효과와 내구력과 가치가 저렴한 일석삼조를 겨냥하여 문직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자는 사라센 문화가 번성할 때에 중국으로부터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12~13세기경 르네상스 초기에 이탈리아에 수입되었다. 당시 주자의 수출항이었던 중국 굴지의 상업 항구 Tzuting의 명칭을 취하여 직물의 명칭으로 하였으나 아라비아에서 aytun이라던가 zaytuni라고 하여 이탈리아로 들어가고 나서 zetin으로 되어 이것이 후에 satin으로 되었다. Tzuting은 현재의 복건성(福建省)의 천주(Chuanchow)로써 아모이로부터 북쪽에 있는 좋은 항구이다. 용도는 각테일 드레스, 이브닝, 쿿숄, 모피 오버의 안감, 복지 안감, 리본, 가운, 아동복, 방석 등으로 다양하다.

* 면 그 외의 방적사 주자(Sateen, Satine)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아크릴, 비닐론 등의 방적사를 사용하며 일본에서는 견, 레이온, 합성 주자도 면, 스프 주자도 같은 주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영국, 미국에서는 면, 스프 주자를 Sateen이라고 부른다. 통상 5매 주자라던가 8매 주자로써 위 주자와 경주자 있다. 견, 인견 주자로써는 직물 면에 길게 부출된 경사는 무연임과 더불어 실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질에 따라서 세로로 평행하게 폭넓게 넓혀져 위사가 경사를 누르는 개소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고 고로 직물면에는 다만 경사만이 나타나고 그것이 한결같이 빛나 보이는 것만으로써 사문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에 반하여 면, 스프 주자에서는 일종의 능선이 나타나 보인다. 이러한 능선을 주자선이라고 한다. 주자선은 위주자에서는 기울기가 느슨하고 경주자에서는 기울기가 급하다. 면주자도 스프주자도 비닐론이나 폴리에스터 방적사 주자도 모두 촉감이 매끄러워 미끌미끌하여 광택이 풍부하다. 원사는 40~80's의 합사를 경사로 사용하고 위사로는 20~40's의 단사를 사용하거나 합사를 사용하기도 하며 경사에 40~20's, 위사에 30~16's의 단사로써 제작한 연직 주자도 있다. 제작이 완료되면 정련, 표백 그리고 염색 가공을 실시하기도 하고 흰색, 무지염이나 날염을 하기도 한다. 또 가공 공정에서 광택을 내기 위하여 슈라이너 칼렌더로

작업하기도 하고 고급품인 경우에는 염색가공 이전에 실켓 가공을 하기도 하여 견과 같은 촉감과 광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면주자는 원래 면사를 사용하였으나 기타 레이온이나 합성섬유로한 방적사 또는 그의 혼방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자는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며 바탕이 조밀하지만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면주자는 위주자 조직의 것이 많으나 경주자의 것도 있다. 경주자에는 경사에 매듭사를 불규칙하게 넣는다던가 도비로써 불규칙하게 줄기를 넣는 것도 있다. 요즘은 새틴이라고 부른다.

용도로는 캅테일 드레스, 노동복, 텍킹, 다운 웨어, 방석, 커버, 가운, 슬립, 안감, 코팅 직물의 기포 등으로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주자측면(Satin Crepe, Satin back Crepe, Crepe back satin)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주로 사용하며 경사에 무연사, 위사에 좌연과 우연의 강연사(견에서는 3,000~3,500T/M 정도, 인견에서는 1,800~2,500T/M정도)를 2월씩 교호로 타입하여 조직을 정척주자로 한 것이다. 직물의 한쪽은 섬세한 주름이 있는 주자로 보이고 다른 한쪽은 플랫 크레이프와 같은 측면 효과를 나타내 보이고 어느 쪽의 면도 표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물이다. 조직은 주로 5매 주자이다. 새틴 크레이프라고도 한다. 후정련물로써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한다. 주자 측면의 바닥에 줄무늬나 무늬를 나타낸 것을 무늬 주자 측면이라고 한다. 굵은 울의 위사를 평직으로 제작하여 호박단 모양의 세로 줄무늬를 만드는 것이라던가 주자직물과를 교호하게 배열하여 가로 줄무늬를 나타낸 것, 측면 바닥에 주자 무늬를 나타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밀도는 대체로 경사가 위사의 2배이상으로 경사의 수가 매우 많으며 부출 하는 경사가 많으므로 광택이 많다. 주야 조직을 응용하여 바닥을 경주자로 무늬를 위사로 하여 모양을 제작하고 바닥과 무늬를 거의 같은 넓이로 나타내게 하여 표리 모두 같은 외관으로 한 것을 윤자라고 한다. 드레스, 슈트, 핸드백, 모피 외투의 안감, 우척, 코트 등에 사용한다.

* 체비엇(Cheviot)

체비엇 양모를 사용한 트위드

* 치즈 클로스(Cheese cloth)

평직의 면직물으로써 원래 치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4.2kg 당묵(폭 36inch, 120yd의 중량이 4.2kg 전후인 얇은 당묵)이라고 불리는 것에 해당한다. 경위사 40's 단사으로써 성긴 밀도로 평직으로 한 얇고 울이 성긴 거친 직물이다. 치즈나 육류의 포장, 밀가루 포대, 국기용 직물, 거즈, 붕대, 서적의 덮개, 커튼, 양산지 등으로 사용한다.